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의 극적·음악적 구조 연구*

이혜진
(성신여자대학교 조교수)

1. 들어가는 글
2. 드라마 분석
 - 1) 플롯 1: 흥범도를 중심으로 한 플롯
 - 2) 플롯 2: 연태용을 중심으로 한 플롯
3. '라이트모티브' 분석
 - 1) 장·단조 모드의 혼용
 - 2) 라이트모티브
4. 나가는 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 S1A5B8069753).

개 요

나실인 음악, 고연옥 대본의 《극장 앞 독립군》은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재즈 등의 다양한 음악 장르, 여러 개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화려한 무대장치, 무용 등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진 '대규모 음악극'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음악과 드라마가 작품 전체에 일관된 극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양상이 주목된다. 극은 1940년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노인 흥범도의 이야기 안에 1900년대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흥범도 장군의 이야기가 극중극 형태로 삽입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연태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또 다른 극적 갈등이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서로 얽혀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 여러 갈래들은 '극장'이라는 주제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진다. 이 극적 유기성은 음악에 의해 효과적으로 뒷받침된다. 특정 상황, 인물, 감정 등을 상징하는 6개의 라이트모티브들은 대사와 함께 인물들 간의 감정과 관계를 표현해내는 매개 역할을 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작품 전체의 구조 안에 음악적·연극적 망을 만들어낸다.

주제어: 극장 앞 독립군, 나실인, 뮤지컬, 오페라, 음악극, 라이트모티브, 플롯, 내러티브

1. 들어가는 글

나실인 음악, 고연옥 대본의 《극장 앞 독립군》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종문화회관 산하 7개 예술단의 공동 작업으로 기획·제작된 ‘대규모 음악극’이다. 흥병도 장군을 모티브로 20세기 전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의 일대기를 극 중 연극으로 상연하는 메타극 방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재즈 등의 다양한 음악 장르, 여러 개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화려한 무대장치, 무용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 작품은 관객에게 ‘볼거리’와 ‘들을 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한다. 실제로 2019년 9월 20~2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초연 시, “가상의 흥수가 넘치는 온라인 시대에 극장에 도사리고 있는 스펙터클을 보여준”¹⁾ 이 작품은 서울시 산하 여러 예술단원 300여 명이 빼곡히 자리를 채운 압도적인 무대로 주목받았다.²⁾

그런데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화려한 무대장치, 카리스마 넘치는 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선율 등 단순히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무대 예술적’ 또는 ‘공연 예술적’ 측면이 아니다. 이보다 더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관객으로 하여금 극에 몰입하게 하는 이 작품 특유의 구성력에 관한 것이다. 뮤지컬 넘버 풍의 음악을 중심으로 팝, 모던록, 국악, 재즈, 힙합 등의 다양한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등장인물들이 처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서로 다른 시공간을 오가며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작품의 무게중심이 연극적 요소에 비해 ‘공연’ 혹은 ‘쇼’에 집중할 수 있는 요인들에 쏠려 있는 인상을 줘도 불구하고, 《극장 앞 독립군》을 감상하는 관객은 공연의 처음부터 마지

1) 이재훈, “[리뷰] 세종문화회관 ‘극장 앞 독립군’, 두 번 공연은 너무 아깝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922_0000776176, 『NEWSIS』, 2019. 2. 22. 검색일: 2020. 10. 14.

2) 고보현, “[리뷰]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경비원이 된 말년의 흥병도를 만나다,” <https://m.mk.co.kr/uberin/read.php?sc=30000001&year=2019&no=757649>, 『매일경제』, 검색일: 2020. 10. 14.

막까지 극적 흐름에 ‘흡수’된다. 본 글에서는 《극장 앞 독립군》의 극적 구조와 음악적 구조의 분석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드라마의 흐름에 몰입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21세기 한국창작 음악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드라마 분석³⁾

《극장 앞 독립군》은 1940년대 러시아를 현재 시점으로 설정해, 대한독립군 의병 대장이던 홍범도가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에서 수위를 하며 말년을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그 극장에 속한 여러 인물들의 에피소드들을 그린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래와 같다.

[표 1] 《극장 앞 독립군》 등장인물

홍범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이옥녀	홍범도 아내
어린 양순	홍범도 아들
연태용	고려극장 연출가겸 배우
최보경	고려극장 여배우, 극장장, 연태용 아내
박한춘	신인작가
고려극장 배우들	황만금, 김표도르, 강학철, 박노자, 차예분, 이반. 문콘스탄틴, 리길수, 문소피아
최니콜라이	인민배우
기타	여심사관, 남심사관, 소련공산당 간부

특히 이 작품에서 사건이 전개되거나 발전되는 양상은 매우 독특하다. 여기에는 두 개의 ‘사건의 틀’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한

3) 본 논문에서 인용한 극의 대사들은 작곡가 나실인이 직접 제공한 악보에서 참고한 것임을 밝힘.

이야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연태용이라는 인물이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이다.

[표 2] 《극장 앞 독립군》의 드라마 구조

구분		송 넘버	플롯 1 (홍범도)	플롯 2 (연태용)	
막	장				
1	전주곡				갈등의 시작
	1장	의병들의 노래	M1 신대한민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합창	
	2장	직업심사위원회	M2 춘향이 네 이년	극중극	
	3장	고려극장	M3 고려극장 간판 여배우	현재시점	
			M4 오늘 공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합창	
			M5 홍대장 가는 길엔	현재시점	
	4장	고려극장 연습실	M6 연출가란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현재시점	
	5장	태백산	M7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극중극	
			M8 어서 가세요 목숨 부지하면		
	6장	고려극장 앞	M9 가축 실어 나르는 차가운 화물칸	현재시점	
M10 극장 불이 켜지면			합창		
2	간주곡				갈등의 전개
	7장	고려극장 연습실	M11 에헤야 에헤야	합창	
	8장	일본군 헌병초소	M12 시간이 없어요, 어서...	극중극	
			M13 부인의 처지 참 안되었소		
	9장	산속 홍범도 기지	M14 저는 일본군 빨래도 하고		
			M15 네 어미야 하루 아침에		
			M16 날 믿어준 유일한 사람		
			M17 온다 홍범도가 온다		
			M18 오셨네요. 못 보고 가나 했어요		
	10장	깊은 밤, 고려극장 연습실	M19 없네, 없어	현재시점	
11장	고려극장 무대	M20 저 하늘에 흰 구름	극중극		
		M21 잘 있거라 조선 땅아			
12장	고려극장 앞	M22 극장의 마지막 불 꺼지면	합창		
				갈등의 해결	

1) 플롯 1: 홍범도를 중심으로 한 플롯

1919년 3·1운동 직후 홍범도(1868~1943)는 간도(間島)에서 대한민국 독립군을 창설하고 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1920년 6월 국내 진입 작전을 준비하던 중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봉호동 골짜기로 유인하여 항일 독립운동 사상 최초의 승리를 거둔다. 그해 10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네 개의 독립군 부대는 청산리백운평전투를 시작으로 6일간 10여 차례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한다. 그 후 홍범도는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레닌 정부의 협조를 얻어 고려혁명군관학교를 설립하였다. 1922년 소련의 한국 독립군에 대한 무장해제령으로 빚어진 자유시참변을 겪은 뒤, 연해주로 옮겨와 집단농장에서 농사를 지었다. 1937년 스탈린의 한인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 크질 오르다(Kzyl-Orda)로 강제 이주 되었다. 정미소 노동자, 극장 야간 수위로 일했으며, 1943년 76세로 사망하였다.⁴⁾

위의 인용문은 극의 도입부에서 나레이터가 들려주는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로, 《극장 앞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특히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1900년대 조선’과 ‘1940년대 러시아’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재구성하여 매우 입체적인 방식으로 풀어낸다.

우선 홍범도는 1막 2장, 1940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공산당 사무소 직업심사 위원회에서 구직을 위한 심사를 받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한 홍범도는 심사관들에게 조선 독립운동에서 대승을 거두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목화 농사를 지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 현재 홍범도는 카자흐스탄에서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으나,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직업심사위원회에 지원을 한다. 홍범도가 다시 등장하는 곳은 1막 3장, 고려극장 단원들의 춘향전 공연이 끝난 후이다. 특히 이 장은 극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으로, 여기에서는 연태경을 중심으로 한 인물

4)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도입부 내레이션을.

들 간의 갈등의 불씨가 점화되고, ‘극장’이라는 주제가 최초로 출현한다. 고려극장 사람들의 소란을 뚫고 등장한 홍범도는 자신을 직업심사위원회가 앞선 해준 극장 문지기로 소개하는 동시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 이런 홍범도를 향해 연태용은 뼈뺀 태도를 보인다. 1막 6장은 극장 앞에서 청소를 하는 홍범도를 그린다. 홍범도는 배우들에게 포수 일을 하면서 7년 동안 아내 고향인 북청을 살살이 헤매고 다니고, 시장에서 아내를 목격하고 일곱 살 난 아들 양순과 조우하는 등 아내 이야기를 들려준다. 2막 10장 깊은 밤, 고려극장 연습실. 복면을 한 세 명의 남자들이 들어와 연습실 곳곳을 뒤지면서 도둑질을 하고, 이때 극장 수위 홍범도가 나타나 이들을 저지하며, 격투가 벌어진다. 홍범도는 다리에 칼을 맞으면서까지 도둑들이 훔치려고 했던 의상이 담긴 보따리를 지켜낸다. 2막 12장 고려극장 앞. 마지막 공연을 마친 고려극장은 폐관을 앞두고 있다. 이때 홍범도가 다리를 절며 등장해 극장 문 앞에 앉아 지나간 날을 회상한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과거 시점의 이야기들이 극중극 형태로 전개된다. 1막 5장 1890년 강원도 태백산. 깊은 산중의 산사, 저녁 무렵 젊은 홍범도가 지담 스님에게 숨을 곳을 요청한다. 또 비구니였던 아내 이옥녀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이어진다. 임신한 아내와 홍범도가 두목과 산적을 만나 위기 상황에 몰리고, 두목이 쏘는 총알을 피해 홍범도는 아내를 두고 도망간다. 2막 9장 산속 홍범도 부대 기지. 홍범도와 중대장, 의병들은 식량과 의복, 탄환 등 추운 겨울을 버틸 방법을 강구한다. 홍범도의 아들 양순은 일본군 대장 야스카와가 홍범도의 집을 뒤져서 이옥녀가 쓴 글을 찾아내 그 필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쓴 편지를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홍범도는 분개한다. 아들 양순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홍범도의 총이 양순을 향해 발사되며, 홍범도는 총을 놓고 주저앉는다. 다행히 총알은 비껴 간다. 홍범도는 일본부대에 투항하겠다는 편지를 써서 유인한 다음, 기습할 작전을 세우고, 작전은 성공한다. 이옥녀는 야스카와의 칼에 찔리고, 홍범도는 죽어가는 아내와 조우한다. 2막 11장 추운 겨울, 산속의 홍범도 부대 기지. 이번에는 의병 대진이 여자를 육보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향해 충을 발사하고 속적삼을 벗어 그의 얼굴을 덮어 주며 마음 아파하는 흥범도의 에피소드가 그려진다. 특히 이 장에서 아들 양순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 흥범도는 심리적 위기에 몰리고, 결국 조선 땅을 떠나 만주로 가서 계속 싸울 것을 결심한다.

이처럼 《극장 앞 독립군》에서는 1940년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노인 흥범도의 이야기가 메인플롯으로서 작품의 뚜렷한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극의 이러한 본체 속에 1900년대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흥범도의 이야기가 일종의 서브플롯으로서 삽입되어 있는 형태를 띤다.

2) 플롯 2: 연태용을 중심으로 한 플롯

《극장 앞 독립군》에는 흥범도 이야기 외에 또 하나의 플롯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고려극장 연출가 겸 배우인 연태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흥범도 이야기가 작품 표면에 드러난 플롯이라면, 연태용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갈등을 점화하고, 전개시키며, 해결하면서 작품 내적으로 중요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특히 이 인물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심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태용 개인의 심경 변화와 더불어, 최보경, 박한춘, 그리고 흥범도와의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겪는 심경 변화가 바로 이 작품의 주요 극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1) 갈등의 시작

1막 1장부터 1막 4장에 이르는 극의 첫 네 개의 장은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여기에서 연태용과 여러 인물들 간의 서로 다른 갈등이 빚어진다.

연태용이 제일 처음 갈등을 겪는 인물은 그의 아내이자 고려극장의 배우이며 극장장인 최보경이다. 카자흐스탄 시내 고려인촌의 고려극장 앞. 춘향전의 한 대목이 극중극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최보경이 등장한다. 자신을 한심스럽

게 바라보는 최보경을 향해 연태용은 “아! 이분은 누구신가요? 한때 수많은 남성들 애간장을 녹였던 고려극장 간판 여배우, [...] 고려극장 극장장이 되신 후부터는 가난한 이몽룡을 버리고 변학도의 차가운 심장을 닮아 가시는 분!”⁵⁾ 이라며 비아냥거린다. 이런 남편을 향해 최보경은 카자흐스탄 땅에서 소련 작품이 아닌 조선 이야기인 춘향전을 공연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한다. 이러한 갈등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최보경] 당신, 집에 안 들어온 게 며칠 쯤지 알아? 연극하는 남자는 가 정도 없어? [...] 혼자만 대단한 일 하는 줄 알지? 꼭 조선남자 만 이래.

[연태용] 갈 데까지 가는구나! 좋았어! 잘해봐! 훌륭하신 소련 놈 데려와 극장 내 주고, 안방 내 주고, 귀부인 대접 받으면서 살아 보라고. 우리한테 정절이 어딴어? 조선이란 나라 없어진 지가 언젠데.⁶⁾

연태용과의 갈등 상황을 연출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홍범도이다. 1막 3장. 홍범도가 극장 문지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고려극장을 방문하는 장면. 본인이 홍범도라는 정체성을 밝힌 순간 배우들은 “홍범도?, 홍범도 장군?, 나는 홍범도?”하면서 웅성댄다. 홍범도에게 존경을 표하는 박한춘 작가와 배우들과는 다르게, 홍범도를 대하는 연태용의 태도는 까칠하고 불손하기까지 하다.

[홍범도]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 것도 믿지 마시오. 난 날 아다닌 적도 없고, 모래알로 총알을 만든 적도 없어요. [...] 다 사람들이 재미삼아 만들어서 윗길 말일 뿐이요.

[연태용] 그런 말을 누가 믿습니까?

[홍범도] ...아직도 간혹 믿는 사람이 있어서 골치 아파요.

[연태용] (차갑게) 제 아버지는 옛날에 홍범도 장군 부대에서 싸우다가

5)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1막 3장.

6)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1막 3장.

돌아가셨습니다.

[홍범도] (복잡한 심정으로) ... 아버지 이름이 뭐요?

[연태용] ... 잊어버렸습니다.7)

연태용은 신인 작가 박한춘과도 갈등을 겪는다. 1막 3장. 신인작가 박한춘이 일전에 대본을 보낸 적이 있다면서 연태용 앞에 나타난다. 이후 홍범도가 극장 문지기 지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극장 앞에 등장했을 때 박한춘은 홍범도를 처음으로 마주한다. 평소 그를 동경하던 박한춘 작가는 이 고려극장 앞에서 장군님을 만난 건 운명이라며, “조국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곳에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박한춘의 이 같은 태도와 달리 연태용은 박한춘의 대본에 영 시큰둥하다. 1막 4장. 박한춘이 대본 몇 부를 들고 고려극장 연습실을 방문하는 장면. 하지만 대본이 ‘날으는 홍장군’이란 것을 안 연태용은 공연을 올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연태용] <날으는 홍장군>? 안 돼! 다 가져가!

[박한춘] 우리가 누구인지 살아있는지, 말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태용] 홍범도는 우리를 대표할 수 없어!

[박한춘] 홍범도 장군은 살아있는 영웅이에요.

[연태용] 우리들 대부분은 독립운동가의 자손이거나 그 이유로 쫓겨난 사람들이다. 고향 떠나 긴 세월 떠돌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는지 잊었나?

[박한춘] 고향을 잊지 말자고 춘향전 하는 건 말이 됩니까? 돌아갈 수 없다는 패배의식 아닌가요?

[연태용] 건방진 놈!8)

7)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1막 3장.

8)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1막 4장.

(2) 갈등의 전개

1막 5장부터는 연태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갈등이 전개된다. 연태용은 배우들과 선배 배우 최니콜라이의 권유로 박한춘 작가의 ‘날은 홍장군’을 한번 읽어보기로 한다. 여전히 시큰둥한 채로. “오늘만 읽어 볼 거야.”라고 말하지만, 연태용의 이러한 심경은 점차 변화된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연태용의 심경 변화가 최초로 감지되는 지점은 고려극장 배우들이 ‘날은 홍장군’ 극중극을 펼치는 가운데 최보경이 등장해 이 공연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대목에서이다. 1막 5장. 1890년 강원도 태백산을 배경으로 고려극장 단원들의 ‘날은 홍장군’ 공연이 한창인 가운데, 최보경이 등장해, 연습을 중지시킨다.

[최보경] 얘기가 틀리잖아요. 한 번 읽어보기만 한다면ですよ.

[연태용]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다가 ... 하고 싶어졌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만들어 보고 싶어졌다고.

[최보경] 공연 못 해요!

[연태용] 간섭 그만해! 내가 당신 꼭두각시아?

[최보경] 이 작품 위험해. 지금 소련은 일본 눈치만 보고 있는데,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하는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공연한 편 올리자고 목숨 걸 필요 없잖아! (모두에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제발 죽은 듯이 살자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조용히 제발.⁹⁾

아내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만들어 보고 싶어졌다.”라는 연태용의 대사는 이미 홍범도에 대한,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1막 6장 고려극장 앞. 독일과 소련 간의 전쟁이 터졌고, 상황은 소련에게

9)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1막 5장.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고려극장은 폐쇄될 위기에 놓인다. 아니나 다를까 소련공산당 간부와 군인들이 돌아와 “현재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본이 개입할 경우 위험하다. 따라서 일본을 자극하는 그 어떤 사소한 것도 없애야 하며, 따라서 고려극장 폐쇄를 명령한다.” 라고 말한다. 바로 이때 연태용의 마음속 깊이 있던 본심이 드러난다.

[간부] ... 고려극장 폐쇄합니다.

[연태용] 이해합니다. 아니,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간부] 당연히 그래야지.

[연태용] 깨끗이 물러나 드리죠.

[간부] 말에 가시가 있네?

[연태용] 우린 영원한 떠돌이들이니까요. 가끔 내가 왜 여기 있나 낯설기만 합니다. 연해주와 간도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 그 지옥같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서

[...]

[연태용] 그렇게 한 달을 달려 우릴 내려 준 곳은 갈대밭과 진흙 밖에 없는 황무지. 저 바슈토페 언덕이죠. 겨우 땅을 파고 들어가 한겨울을 보내고 봄부터 논과 밭을 일구어냈죠. 그리고 여기에 극장을 지었다빈다. 떠돌이 주제에. 가진거라곤 뭉툭아리뿐인 우리가 농사짓는 시간을 아껴 극장을 짓고 공연을 만들었던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왜 그토록 절박했을까요? 아마도 이 극장을 우리의 심장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 먼 곳을 향해 뛰고 있는.

[간부] 요점이 뭐요?

[연태용] 고려극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¹⁰⁾

10)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1막 6장.

연태용이 소련공산당 간부와 이야기하는 위의 대목에서, 그의 두 가지 본심이 드러난다. 첫 번째는 연태용과 박한춘 사이의 앞선 갈등은 표면상의 갈등일 뿐, 연태용이 박한춘 작가의 ‘날으는 홍장군’ 공연을 반대했던 데에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반감과, 더 나아가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란 이유로 고국에서 쫓겨나 긴 세월 실향민으로서 살아온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이 깔려 있었다는 점이다. 이 대화에서 감지되는 또 다른 사실은 ‘극장’에 대한 연태용의 절박함이다. 그에게 ‘극장’은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다.

(3) 갈등의 해결

독립운동가의 아들이자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원망은 극의 후반부에서 해소된다. 2막 10장. 깊은 밤, 고려극장 연습실. 복면을 한 세 명의 남자들이 들어와 연습실 곳곳을 뒤지면서 도둑질을 하고, 홍범도는 이를 저지하다 칼에 찔린다. 바로 그때 연태용이 급히 뛰어 들어와 피 흘리고 있는 홍범도를 보고는 곁에 있던 천으로 지혈을 한다. 이때 나누는 홍범도와 연태용의 대화 장면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반감과 독립군이었던 자신의 부친에 대한 원망이 해소되는 지점이다.

[홍범도] 별거 아니야, 그냥 뒤요.

[연태용] ... 상처가 깊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홍범도] 문 연 병원도 없어. 괜찮아, 이까짓 거.

[연태용] 집에라도 모셔다 드릴게요.

[홍범도] 가봐야 나 혼잔데. 여기가 좋아요. 땀냄새 화장품 냄새. 연출생은 이 밤에 웬일이요? 또 극장장남하고 싸웠소?

[연태용] ... 아내하고 있으면 제가 뭘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극장일로 골치 썩히는 것도 내 잘못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 걱정시키는 것도 제 탓이고, 같이 있으면 괜히 화만 냅니다.

[홍범도] 그게 다 부인을 사랑해서 아니겠소.

[연태용] ... 왜 그러셨어요. ... 그냥 두시지, 뭐 하러 싸우세요!

[홍범도] 중요한 거잖소. 공연을 하려면.

[연태용] 어차피 문 닫을 거. 상관없어요.

[홍범도] 아버지 ...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연태용] ... 기자 문자입니다.

[홍범도] 연기문!

[연태용] 아십니까?

[홍범도] 내 부대원이 맞소. 아주 잘 알지요.

[연태용] 나는 홍범도 부대로 가겠다, 노래를 부르더니 진짜 떠났어요. 의병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빼앗기고 어머니와 여기저기 숨어 다녔어요. 동생 둘은 굶어죽고, 어머니와 남은 동생 하나도 전염병에 걸려서... 아버지를 찾아가 내 손으로 죽여 버려야지 했는데,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홍범도] ... 부탁이 있어요. 이 공연 하지 맙시다. ... 도저히 ...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시절, 내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 싸우고 또 싸우고, 그 싸움에 취해서 죄 없는 사람들 죽게 하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소. ... 참 쓸데없는 짓을 했지. 내가 뭘 위해 싸웠는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진짜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아요. ...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피가 끓어 오르는데 ... 이 홍범도가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오. 이제 할 수 있는게 없어.

[연태용]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극장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데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기든 지든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¹¹⁾

의병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연태용. 아버지를 찾아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원망의 골이 깊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부친의 사망 소식이었다. 어디다 대고 원망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자신이 겪은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른 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긴 세월을 견뎌온 그. 이런 연태용에게 극장은 그를 숨 쉬게 한 유일한 수단이자,

11)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2막 10장.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생명 같은 것이었다.

연태용과 홍범도, 그리고 더 나아가 연태용 자신과의 화해는 아내와의 화해로도 이어진다. 2막 12장. 고려극장 앞. 극장의 폐관을 앞두고 연태용과 최보경이 등장한다.

[최보경] 지붕 수리 미룬 건 잘 했어요. 조명기기는 괜히 바꿨어. 얼마 써 보지도 못하고. 음향기기는 버티길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이번 공연에서도 문제 많았지만. 화장실 수리한 지 일년밖에 안됐는데 ... 아까워 ... 그때 얼마나 고생 했는지 ...

[연태용] 아무도 없어. 울고 싶으면 울어. 당신과 나 사이엔 항상 극장이 있었지. 극장 때문에 매일 싸웠어. 이제 어떻게 될까?¹²⁾

최보경은 울음을 터뜨리고, 연태용과 최보경은 손을 잡고 퇴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극장 앞 독립군》에서는 홍범도와 연태용을 축으로 한 두 개의 플롯이 존재하며,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이 중심축을 둘러싸고 있다. 플롯 1의 경우, 1940년대 러시아에서 극장 수위로 살아가는 노인 홍범도의 삶을 다루는 이야기가 메인플롯이라면, 극중극 형태로 전개되는 1900년대 조선에서의 독립군 홍범도의 이야기, 그리고 홍범도와 아내 이옥녀, 어린 아들 양순과의 에피소드는 이를 둘러싼 서브플롯들이다. 플롯 2에서는 독립군의 아들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연태용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홍범도와,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와 겪게 되는 심적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주요 골격을 이루고, 여기에 연태용과 신인작가 박한춘, 그리고 연태용과 아내 최보경 사이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은 서브플롯으로 연태용의 이야기를 보조한다. 이처럼 《극장 앞 독립군》에는 여러 개의 구조가 얽히고설켜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자칫 산만할 수 있는 이러한 드라마의 구조가 오히려 관객에게 깊고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며, 이 여러 에피소드들이 굽직한 하나의 흐름으로 집중되면서 어떤 뚜렷한 주제로 모아

12)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2막 12장.

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극장’인데, 이 주제는 작가가 이 시대의 관객에게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기도 하다.

‘극장’ 주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신인작가 박한춘이 최초로 등장하는 1막 3장에서이다. 박한춘은 연태용에게 자기를 “떠오르는 셋별, 물오른 버들강아지, 신인작가 박한춘”이라고 소개하며, 일전에 고려극장을 모티브로 집필한 대본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박한춘] 다들 안녕하십니까? 떠오르는 셋별, 물오른 버들강아지, 신인작가 박한춘입니다! 일전에 선생님께 대본을 보내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

[연태용] 아, 이제야 기억나네!

[박한춘] 고려극장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연태용] 우리 극장에서 공연하고 싶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살아있는가! 우리 민족에게는 생명같은 문제라네.¹³⁾

박한춘과 연태용의 이 첫 만남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극장을 “생명 같은 문제”라고 말하는 연태용의 대사이다. ‘극장’ 주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극장’을 향한 연태용의 애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1막 4장 연태용의 솔로 〈연출가란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그리고 1막 6장 도입부에서 극장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흥범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극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목에서이다. 특히 흥범도가 멀리서 극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자신의 본심을 털어놓는 대사는 의미심장하다.

[흥범도] 극장이라는 데는 참 이상해요.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정확히 표현은 못하겠지만, 여길 통하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옛날에 어느 시절이든, 어느 꿈속이든. 무슨 말인지 알

13)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1막 3장.

겠소? 나도 잘 모르겠네 ... 배우들은 연습실에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는데, 자기가 그것이 된 것 마냥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잘하려고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해요.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묻고 싶어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저 가만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 눈물이 나오. 가끔은 배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지요, 내가 살 때도 있어요. 배우들을 술을 참 좋아해.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말이죠. 난 그네들이 술 마시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¹⁴⁾

한때 독립군으로 위용을 떨쳤으나 이제는 가족도 다 잃고 타지에서 극장 수위 노릇을 하는 초라한 노년 생활 앞에, ‘극장’이라는 곳은 비현실적인 공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타자의 시선에서 흥범도의 인생에 건네는 어떤 위로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극장’ 주제는 《극장 앞 독립군》을 관통하는 주제로, 1막 3장 〈오늘 공연하는 거야 마는 거야〉, 1막 6장 〈극장 불이 켜지면〉, 2막 12장 〈극장의 마지막 불이 꺼지면〉 등 작품의 중요한 순간에 배치되어, 음악적·극적 골격을 이룬다. 특히 이 작품에는 등장인물의 행동과 연기, 연출, 무용, 음악 등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음악은 극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 ‘라이트모티브’ 분석¹⁵⁾

《극장 앞 독립군》은 전주곡과 간주곡 포함, 총 24곡의 노래들과 기타 장면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오케스트라, 국악 앙상블, 그리고 이 둘의 조합에 의한 다양한 음색으로 표현된다(〔표 3〕 참고).

14)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1막 6장.

15) 작품분석을 위해 사용한 악보 및 인용된 악보는 작곡가 나실인이 직접 제공한 악보에서 참고한 것임을 밝힘.

[표 3] 《극장 앞 독립군》의 악기편성

서양악기	플루트 1, 2, 오보에 1, 2, 클라리넷(Bb) 1, 2, 바순 1, 2, 호른(F) 1, 2, 3, 4, 트럼펫(Bb) 1, 2, 트롬본, 튜바, 팀파니, 타악기 I, II, 하프, 피아노,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국악기	대금 1, 2, 피리 1, 2, 가야금 1, 2, 거문고, 해금, 아쟁
대중악기	드럼 세트

이 작품에는 클래식(조성, 무조성 음악)에서부터 90년대 대중가요, 모던록, 국악, 재즈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들로 구성된 24개의 넘버들과, 여러 종류의 장면 음악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악들이 드라마를 끌어나가는 양상은 어떠한가?

1) 장 · 단조 모드의 혼용

전주곡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1막 1장 ‘의병들의 노래.’ 본격적인 극의 전개에 앞서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가 합창으로 노래된다.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건가
정의의 날쌔칼이 비키는 곳에 이기리 너와 나로다
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혼령이 됴이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빛내리 너와 나로다
암록강과 두만강을 뛰어건너라 악독한 원수무리 끌어몰아라
잃었던 조국강산 회복하는 날 만세 불러보세¹⁶⁾

16)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1막 1장.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의 이 합창 가사는 투쟁과 승리를 노래하고, 음악은 부점과 빠른 리듬 패턴, 선율의 폭넓은 도약으로 가사의 내용을 보조한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악이 환기하는 정서는 다소 이중적이다.

음악은 네 마디 단위의 악구 구조가 투명한 구문법을 만들며, 각 악구는 ‘vi-IV-I-V’의 최소한의 화음 진행과 함께 뚜렷한 선율을 갖는다. 어린이 솔로가 먼저 B♭ 장조에서, 그리고 이후 전조되어 합창단 전체가 C장조에서 노래하는데, vi 단3화음으로 시작하는 이 합창은 장조의 모드와 함께 관계단조를 동시에 함축한다. 그리고 a단조를 함축하되 C장조로 전개되던 합창은 성악선율의 종지음 G#이 오케스트라의 A음으로 해결되는 마지막 부분에서 단조의 모드를 강하게 부각시킨다. 즉 외양상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이나, 장·단조 모드가 혼용되어 결국 단조로 종지되는 이 합창은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의 투쟁과 승리를 노래하나, 동시에 그들을 연민하고 애도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드라마는 독립군들의 화려했던 과거 투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와는 상반되는 현재의 초라한 모습과 그들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세월을 담담하게 그려 낸다.

2) 라이트모티브

《극장 앞 독립군》에는 총 여섯 개의 주요 라이트모티브가 등장한다.¹⁷⁾ 특정 인물, 상황, 감정 등과 연관된 이 주제 혹은 동기는 줄거리가 전개와 함께 변화, 발전, 변형, 반복되면서 전체 극을 이끌어간다.

17) 본 고에서는 6개의 라이트모티브를 각 모티브가 처음으로 제시된 장에 근거해 표기했다.

장	라이트모티브
1장	1A, 1B, 1C
3장	3A, 3B
5장	5A

(1) 라이트모티브 1A & 1B & 1C

1막 1장 '의병들의 노래'의 전주에 세 개의 라이트모티브 1A, 1B, 1C가 제시된다([악보 1] 참고).

[악보 1] 라이트모티브 1A, 1B, 1C

이 세 개의 주제는 '날은 흥범도'의 극중극 장면과 고려극장의 폐쇄 위기 장면 등에 등장한다.

[표 4] 라이트모티브 1A & 1B

장	해당 마디	해당 가사/대사/줄거리
1장 의병들의 노래	97~100	
	101~104(1A+1B)	
2장 직업심사위원회	174~177, 202~204(1A+1B), 206~207, 214~215	노인 흥범도가 1940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공산동사무소 직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장면
5장 태백산	615~616	지답스님: 무얼 찾아오셨소? 흥범도: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장	해당 마디	해당 가사/대사/줄거리
6장 고려극장 앞	790~793, 794~797, 798~801, 802~805, 806~809, 810~813, 814~817	소련 공산당 간부: 친애하는 크즐오르다 고려인촌 주민 여러분! 현재 독일괴뢰도당들이 독소불가침협정을 위반하고 우리 소련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공했습니다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그들의 작태를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며 며칠 내로 이 소련 땅을 떠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전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818~821, 822~825, 826~829(1A+5A)	소련 공산당 간부: 하지만! 만에 하나 일본이 개입하게 된다면 자칫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국의 유일한 걱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일 지라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자로 고려극장의 폐쇄를 ...
	834~837	소련 공산당 간부: '위대한 스탈린 극장' 어떻습니까?
	838~841, 842~845, 846~849(1A+1B)	최보경: 너무 갑작스런 제안이시라... 고려극장은 이미 위대한 스탈린 동지의 뜻을 충분히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 고려극장의 단골 레퍼토리가 춘향전이지요? 그거 조선과 일본 얘기 아닙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조선말로 노래하고 말하면서 조선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우리 소련인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써 여러 번 경고하지 않았소?
	956~958	연태용: 고려극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8장 일본군 헌병초소	1178~1181, 1182~1185, 1186~1189, 1190~1193, 1194~1197, 1198~1201	(일본군 대장 야스카와 소좌, 친일파 일진회 회장 임재덕, 변절자 소진의 대화) 임재덕: 흥범도가 방금 우리 집을 다녀갔소. 야스카와: 얼굴을 보았소? 임재덕: 복면을 쓰고서 단총을 겨누며 '나는 산간에서 나무 밑을 큰집 삼아 사는 흥범도요. 내가 이곳에 온 뜻을 잘 알지 않소? 어서 조취를 취하십시오!'라고 하는 통에 ... 암말 못하고 수중에 있던 돈 3만원을 주었소. 야스카와: 교활한 놈! 임재덕: 당신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야스카와: 기다리시오. 곧 흥범도의 목을 보여 줄 테니. 임재덕: 나도 이제 가만있지 않을 것이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지.

장	해당 마디	해당 가사/대사/줄거리
9장 산속 홍범도 기지	1434~1437, 1438~1441, 1442~1445, 1446~1449	(홍범도 부대 기지. 홍범도와 중대장 차도순, 의병 정범, 의병 소진의 회의 장면)
	1574~1577	홍범도: 죽었나? 차도순: 비켜갔습니다. 홍범도: 천지신명님, ... 감사합니다!
	1578~1581, 1582~1585, 1586~1590(1A+1B)	차도순: 귀를 맞았어요. 피가 많이 납니다. 홍범도: 어서 치료를. 정범, 양순을 업고 나간다. 차도순: 편지에 회신이 없자, 부인과 양순까지 고문한 것이 분명합니다. 홍범도: 크게 물어버려야겠어.
11장 고려극장 무대	2019~2022	홍범도: 자네들, 내 당부는 잊지 않았겠지? 차도순: 부대로 돌아올 때, 뒤를 조심하란 얘기 말이다.
	2023~2026, 2027~2030, 2031~2034(1A+1B)	상구: 아블싸, 뭐가 잊은 것 같더라니. 양순: 제가 정찰을 하고 오겠습니다. 차도순: 제가 가겠습니다. 양순: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 이제 저도 의병입니다. 홍범도: 그래 양순이가 가거라. 싸움을 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야. 김새가 이상하면 즉시 돌아와.
	2060~2063	정범: ... 갑자기 날아온 탄환에 ... 정범, 양순의 시체를 내려놓는다. 홍범도, 떨리는 손으로 양순의 얼굴과 몸을 만진다.
	2064~2067, 2068~2071, 2072~2075(1A+1B)	홍범도: ... 데려와줘서 고맙네. 차도순: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홍범도: 한꺼번에 모두 움직이면 표적이 될 것이다. 여기서 흩어지는 수 밖에 없다.

먼저 마디 97~100에 제시된 1A는 단2도 상행과 완전5도 상행 후 감4도 하행하는 선율로, 온음표, 점2분음표, 4분음표에 의한 느린 리듬 진행을 특징

을 한다. 이후 이 모티브는 원형 그대로 반복되기도 하고 극적 상황에 따라 음가가 축소되거나 음정이 변화되면서 작품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뤄진다. 특히 현재시점과 과거시점의 이야기 둘 다에 등장하는 1A는 대한민국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과 극장 수위 노인 홍범도, 그리고 극장이라는 세 개의 주제를 엮어내는 ‘극적 망’이다. 먼저 이것은 1890년 강원도 태백산에서 홍범도가 지담스님에게 숨을 곳을 요청하는 장면(1막 5장), 일본군 헌병 초소에서 일본군 대장 야스카와 소좌, 친일파 일진회 회장 임재덕, 변절자 소진이 홍범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2막 8장), 산속 홍범도 기지, 홍범도가 발사한 총에 양순이 귀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2막 9장), 정찰을 나간 양순은 목숨을 잃고 홍범도 부대가 위기를 맞아 흩어지는 장면(2막 11장) 등 1900년대 조선, 홍범도 부대의 여러 투쟁 장면 곳곳에 등장한다. 한편 1A는 1940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공산당 사무소 직업심사위원회에서 노인 홍범도가 심사를 받는 장면(1막 2장), 소련공산당 간부가 등장해 고려극장의 이름을 ‘위대한 스탈린 극장’으로 바꾸거나, 극장의 폐쇄를 통보하는 장면(1막 6장) 등 현재시점의 이야기에도 등장한다. 특히 후자의 장면에서 이 모티브는 음가와 리듬은 유지되지만 선율은 여러 모습으로 전위되고 변형된다.

라이트모티브 1B는 1A와 마찬가지로 1막 1장 〈의병들의 노래〉 전주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16분음표와 8분음표 구성의 리듬 모티브로서, 특히 이 모티브는 단독으로 제시되지 않고, 매번 라이트모티브 1A를 동반하는데, 이 지점들은 소련공산당 간부가 조선이라는 나라 없어진 지 오래라는 자극성 발언을 쏟아내거나, 양순이 홍범도의 총에 맞아 부상당하는 장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순을 정찰 보내는 장면과 위기에 몰린 홍범도 부대가 결국 흩어지는 장면 등 사건이 고조되어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들이다.

라이트모티브 1C는 ‘정의’, ‘전우애’, ‘투쟁’, ‘승리’ 등과 관련된 동기이다. 앞서 전주곡에 예시되었던 이 주제는 마디 105~108에 본격적으로 제시된다. 힘차게 상승하는 이 선율 주제가 등장하는 지점은 소련공산당 간부의 자극성 발언에 배우들이 분노하고 동요하며, 병사들은 총부리를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과, 일본군에게 “투항하겠다”는 편지를 써서 유인한 다음, 기습을 하겠다.”
거나 “만주에 가서 계속 싸우겠다.”¹⁸⁾라는 흥범도의 승리에 대한 집념과 비장
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표 5] 라이트모티브 1C

장	해당 마디	해당 가사/대사/줄거리
1장 의병들의 노래	105~108, 109~112	
	131~132, 143~144	“정의의 날썬칼이 비키는 곳에”,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6장 고려극장 앞	850	조선이라는 나라 없어진 지 오래라는 간부의 말에 배우들은 분노하고 동요하며, 병사들은 총부리를 겨눈다. 간부: 우리 소련 인민들이 다들 마음이 너그러워 지금까지 참아준 겁니다. 전쟁까지 치러야 하는 마당에 당신들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고려극장 폐쇄합니다.
9장 산속 흥범도 기지	1590~1591	흥범도: 투항하겠다”는 편지를 써서 유인한 다음, 기습을 하는 것이오.
11장 고려극장 무대	2076	흥범도: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가라. 나는 만주로 가서 계속 싸울 것이다. 누가 나를 따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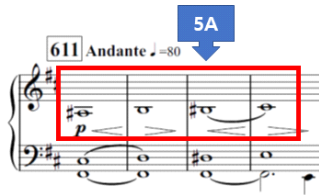
(2) 라이트모티브 5A

라이트모티브 5A는 1890년 강원도 태백산을 배경으로 극중극이 전개되는 5장의 마디611~614에 처음 제시된다([악보 2] 참고). 온음표 구성의 긴 리듬 단위로 반음계적으로 전개되는 이 모티브는 흥범도와 두목의 총격전 장면, 흥범도가 포수에게 총을 달라고 애원하는 장면, 흥범도가 양순을 향해 총을 뽑아 드는 장면, 양순은 일본군 부대로 정찰을 나가고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는

18)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2막 9장.

장면 등 주로 ‘총격전’과 관련된 곳에 등장한다. 5A는, 앞서 언급한, 6장 고려극장 폐쇄를 명령하는 소련공산당 간부를 향해 연태용이 극장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간절히 당부하는 장면에도 1A와 함께 제시된다.

[악보 2] 라이트모티브 5A



[표 6] 라이트모티브 5A

장	해당 마디	해당 가사/대사/줄거리
5장 태백산	611~614	깊은 산중의 산사, 저녁 무렵
	705~708, 709~712, 713~716, 717~720	홍범도와 두목의 총격전
	738~741, 742~745, 746~749	홍범도: 이보시오. 그 총 좀 주시오. 포수: 이게 무슨 짓이오? 홍범도: 총 좀 주시오. 제발 그 총 좀 주시오...이제 겨우 사람답게 살려 하는데
6장 고려극장 앞	954~955	연태용: 아마도 이 극장을 우리의 심장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 먼 곳을 향해 뛰고 있는.
9장 산속 홍범도 기지	1566~1569	홍범도: 오냐, 나에게 가족은 필요없다, 너부터 죽여주겠다! 홍범도 총을 뽑아 든다. 차도순과 정범 결사적으로 말린다.
11장 고려극장 무대	2052~2055	멀리서 총소리가 들린다. 잠시 후 정범이 양순의 시체를 엮고 온다.

[표 7] 라이트모티브 3A & 3B

	Scene	해당 마디	해당 가사/대사/줄거리
3A	3. 고려극장	379~380, 381~382	“오늘 공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무대에 서고 싶지만, 극장 문 닫아선 안되지”
	6. 고려극장 앞	768~769, 770~771	홍범도와 어린 양순의 조우 장면
	10. 깊은 밤, 고려극장 연습실	1884~1885, 1886~1887	홍범도: 싸우고 또 싸우고, 그 싸움에 취해서 죄 없는 사람들 죽게 하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소.
3B	3. 고려극장	387~388, 412~414	오늘도 극장앞은 (곡 전체)
	10. 깊은 밤, 고려극장 연습실	1896~1897	후주(홍범도와 연태용의 화해)

(4) 극적 도구로서의 라이트모티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6개의 라이트모티브들은 특정 등장인물이나 상황, 감정 등과 연관된 곳에 반복해서 등장해, 관객에게 뚜렷이 각인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 혹은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특정 모티브가 나타나 관객은 이후 그 선율만 들어도 그 상황과 인물을 떠올리게 된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 모티브들이 단순히 연극의 배경음악 혹은 장면음악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에피소드들을 하나의 망으로 엮어내고, 인물의 복잡 미묘한 감정적 기복을 그려내며, 사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대사와 함께 극적 흐름을 주도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2막 10장 ‘깊은 밤, 고려극장 연습실’의 예를 보자. 여기에서 홍범도는 의상 보따리를 훔치러 온 도둑들과 격투를 한다. 이때 급히 뛰어 들어온 연태용은 다리에 칼을 맞은 홍범도를 보고 천으로 지혈을 한다. 독립군의 아들로서 아با에 대한 원망과 함께 고통스런 삶을 살아 온 연태용. 그는 독립군이라는 이유로 홍범도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박한춘의 ‘날으

는 흥범도'를 무대에 올리면서 서서히 그 반감은 수그러들고, 칼을 맞아가며 극장 의상을 지켜 낸 흥범도를 보며 부정적인 감정은 완전히 해소된다. “싸우고 또 싸우고, 그 싸움에 취해서 죄 없는 사람들 죽게 하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²⁰⁾는 흥범도의 대사와 함께 라이트모티브 3A가 플루트와 클라리넷에 의해 차례로 연주된다(〔악보 4]). “이 극장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데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²¹⁾ 이어지는 연태용의 고백이다. 이때 라이트모티브 3B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등 목관 전체에 의해 연주된다.

[악보 4] 《극장 앞 독립군》 마디 1884~1898

특별히 이 모티브가 ‘극장’과 연관되었다는 점은 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극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장면은 지금까지 축적된 갈등이 온전히 해결되는 절정의 지점들이다. 이 화해의 시점에 연태용이 마주한 대상은 가족을 버리고 과거 흥범도 부대로 떠난 자신의 부친도, 대한독립군 의병 대장 흥범도도 아닌, 극장 수위로 초라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흥범도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에 대한 의문과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하

20) 나실인 · 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2막 10장.

21) 나실인 · 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2막 10장.

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자책으로, 피가 끓어오르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흥범도 말이다. 극장은 “쓸쓸한 사람들만 머물다 가는 곳”이지만, “저 떠나면 그리운 곳으로 우릴 데려간다.” 그리고 바로 이 극장에서 “떠나간 사람들 마중 가는 길을 꿈꾼다.”²²⁾ 대사만으로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이 아이러니와 황망함, 인물의 갈피갈피에 심층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감정들을 바로 라이트모티브 3A와 3B는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4. 나가는 글

지금까지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의 극적 구조와 라이트모티브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음악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극장 앞 독립군》이 관객으로 하여금 ‘극’에 몰입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화려한 볼거리와 들을 거리 등 다양한 공연 예술적, 무대 예술적 요소들의 외피가 감싸고 있는 응집력 있고 정교하게 고안된 극적·음악적 장치에 기인한다.

《극장 앞 독립군》의 극과 음악 구조는 치밀하고 입체적이다. 먼저 극은 1940년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노인 흥범도의 이야기 안에 1900년대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흥범도 장군의 이야기가 극중극 형태로 삽입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연태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또 다른 극적 갈등이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서로 얽혀 있다.

이 작품은 흥범도 장군이 화려한 전장이 아니라 극장의 수위로 초라하게 취직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극 방식으로) 여러 갈등 속에서 흥범도 장군에 관한 연극이 무대에 올라가고 그 연극을 마지막으로 극장이 폐관되며 극이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고려극장은 19세기 중반 러시아

22)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2막 12장.

로 이주한 고려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극장이고 끊임없이 폐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극장 앞 독립군’은 바로 그때 그들이 당시 ‘의병들’이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렸던 연극에 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연극 속의 영웅 홍범도와 현실에서 실패한 독립군인 홍범도를 대비시킵니다. 연극 속의 홍범도는 실패를 반복하며 영웅으로 거듭나고 현실 속 홍범도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시대 독립군이라고 하는 가장 위태롭고 불안한 길을 선택한 홍범도 장군 같은 분께 극장이 어떤 평화와 위로 같은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중요한 극장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모아 이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²³⁾

고연옥 작가에 따르면 《극장 앞 독립군》은 “19세기 중반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이 당시 ‘의병들’이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렸던 연극에 대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극장에 관한 이야기로서,²⁴⁾ 여기에서는 “연극 속의 홍범도”와 “현실 속의 홍범도”²⁵⁾가 대비되고, 이것이 ‘극장’이라는 주제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진다.

이 극적 유기성은 음악에 의해 효과적으로 뒷받침된다.

극 안에서 1900년대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활동을 했을 시절과 1940년대 극장 수위로 있던 시절로 펼쳐지는데, 음악 내적인 내용을 전쟁이나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의 황망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음악적인 모티프

23) 권애진, “홍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6>, 『뉴스프리존』, 2019. 9. 7. 검색일: 2020. 10. 14.

24) 권애진, “홍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6>, 『뉴스프리존』, 2019. 9. 7. 검색일: 2020. 10. 14.

25) 권애진, “홍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6>, 『뉴스프리존』, 2019. 9. 7. 검색일: 2020. 10. 14.

들, 전쟁터와 극장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로 음악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요소들이 음악을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²⁶⁾

즉 여기에서는 “1900년대와 1940년대, 전쟁터와 극장 등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은 음악을 통해 연결된다.”²⁷⁾ 특정 상황, 인물, 감정 등을 상징하는 6개의 라이트모티브는 대사와 함께 인물들 간의 감정과 관계를 표현해내는 매개 역할을 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작품 전체의 구조 안에 음악적·연극적 망을 만들어낸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조성을 배치하고, 장과 장을 조성적 문법으로 연결하는 것 역시 극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한다. 대사로만 진행되는 부분, 장면음악을 배경으로 연극이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레치타티보의 성격을 띠는 이 세 부류의 노래들은 구체적인 극적 서사의 전개를 담당하고, 단순한 화성진행과 명확한 악구구조, 뚜렷한 표정을 가진 선율을 동반한 서정적인 발라드 및 뮤지컬 풍 넘버들은 주인공의 고뇌와 열정 등의 고양된 감정과 정서를 표출한다.

이 모든 극적·음악적 장치들은 모두 드라마의 내적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음악 드라마를 형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이 작품은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입체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그러나 동시에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한편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21세기 한국창작음악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음악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극음악들이 창작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뮤지컬과 오페라이다. 그리고 이 둘은 여전히 대중음악과 예술

26) 권애진, “홍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6>, 『뉴스프리존』, 2019. 9. 7. 검색일: 2020. 10. 14.

27) 권애진, “홍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6>, 『뉴스프리존』, 2019. 9. 7. 검색일: 2020. 10. 14.

음악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구분된다. 작품성과 대중성, 예술성과 상업성, 소수의 엘리트가 즐기는 고급문화와 다수가 좋아하는 대중문화. 오늘날에도 극음악은 여전히 이 이분법적인 개념적 틀에 의해 성격이 규정지어진다. 예컨대 뮤지컬의 경우를 보자. 이 장르는 오페라와 동일하게 연극에 기반을 두고 여기에 음악, 춤, 무대연출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그러나 ‘쇼’나 ‘오락물’의 성격이 강하고, 특별한 학습 없이 즐길 수 있는 장르로, 관객에게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재미와 감동을 주고자 하며, 그 결과 특정 사람만이 향유하는 오페라에 비해 관객의 폭도 넓은 뮤지컬은 대중예술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창작자는 작품 기획 단계에 이미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작업 노선을 설정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극장 앞 독립군》은 오페라인가? 뮤지컬인가?

작곡가 나실인에 따르면 이 작품은 “뮤지컬에 조금 더 가까운 음악극”²⁸⁾이다. 즉 이 작품은 ‘뮤지컬’에 가깝다. 우선 《극장 앞 독립군》은 역사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민족주의적 색채를 드러내기보다는 흥범도 장군의 삶과 인간적인 모습에 주목한다.

최근 시대 상황을 미루어보아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은 작품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 작품은 흥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입니다. [...] 흥범도 장군의 삶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던 삶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삶의 모습에 주목해서 우리 음악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 독립운동을 다루며 민족주의, 애국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흥범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폐쇄 직전의 극장과 폐망해 가는 조선, 현대 대한민국이 모두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연출, 마지막 공연이 그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감내해야 하는 현대의 대한민국

28) 윤종성, “장군에서 극장 수위로.. 흥범도의 인간적 모습에 주목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6566622622416&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2019. 9. 21. 검색일: 2020. 10. 14.

의 연극계는 상당히 얇아 있습니다.²⁹⁾

이번 작품을 총연출한 김광보 연출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극장 앞 독립군》은 단순한 역사물이 아닌, 과거 흥범도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 현대인의 내면을 성찰하고, 더 나아가 과거 고려극장의 일화를 통해 “현대 대한민국 연극계”를 반추하면서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부부간의 혹은 부자간의 갈등,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에피소드 또한 오늘날의 관객에게도 익숙한 보편적인 주제들이다. 극적 공감을 더욱 끌어내는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오롯이 ‘공연’으로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해 청중의 여흥을 유도하고 있으며, 처음 들어도 흥얼거릴 수 있는 여러 가요나 뮤지컬 넘버들은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다.³⁰⁾

극장 앞 독립군은 뮤지컬에 조금 더 가까운 음악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극이나 뮤지컬에서 다양한 장르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한 작품 안에서 펼쳐지는 것은 이 작품의 재미를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했습니다.³¹⁾

위의 인용문은 작곡 및 음악을 총지휘한 나실인 음악감독의 언급으로, 작곡가 역시 기획 단계부터 청중의 ‘재미’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품의 무게중심이 ‘볼거리’와 ‘들을 거리’, 그리고 ‘재미’와 ‘감동’ 쪽에 근접해 있는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은 ‘대중 지향적’이다.

29) 권애진, “흥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6>, 『뉴스프리존』, 2019. 9. 7. 검색일: 2020. 10. 14.

30) 이재훈, “[리뷰] 세종문화회관 ‘극장 앞 독립군’, 두 번 공연은 너무 아깝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922_0000776176, 『NEWSIS』, 2019. 2. 22. 검색일: 2020. 10. 14.

31) 권애진, “흥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6>, 『뉴스프리존』, 2019. 9. 7. 검색일: 2020. 10. 14.

그러나 《극장 앞 독립군》은 여러 가지 점에서 기존의 뮤지컬과는 다르다. 우선 작곡가 나실인이 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오페라는 클래식 음악의 하위분야로, 작곡가는 오페라 제작에 있어서 중심에 위치하지만, 뮤지컬은 ‘음악’이 아닌 ‘연극’의 하위분야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극을 중심으로 춤, 의상, 연출, 무대, 음악 등 여러 제반 요소들이 융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뮤지컬은 대본가, 안무가, 연출가, 작곡가, 작사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작품이라 할 수 있다.³²⁾ 하지만 대본가 고연옥과 더불어 작곡가 나실인이 이 작품의 창작에서 차지하는 적지 않은 비중을 볼 때 제작 방식은 뮤지컬이 아닌 오페라에 가깝다. 작품 전체의 정서를 세팅하고 예시하는 전주곡, 작품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 상징적으로 노래하는 합창 ‘극장 불이 켜지면’과 ‘극장의 마지막 불 꺼지면’,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마의 망을 음악적으로 엮어 주는 라이트모티브 운용 방식은 ‘뮤지컬’이 아닌 ‘오페라’를 떠올리게 한다.

《극장 앞 독립군》은 마치 한 편의 연극과 한 편의 오페라를 결합하여 ‘음악극’을 만들어낸 후, 이를 전문가에서부터 아마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취향에 호소력을 지닌 “뮤지컬에 가까운 음악극”³³⁾으로 다시 한 번 풀어낸 것처럼 보인다. 오페라 작곡가와 극작가가 협업하여 탄생시킨 대중적인 음악극, 즉 “뮤지컬에 가까운 음악극”으로서, 이 작품은 예술적인 동시에 대중적이다. 요컨대 《극장 앞 독립군》은 대중음악과 예술음악, 뮤지컬과 오페라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한국 창작음악극의 방향을 제시한 작품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규모와 성격을 가진 한국창작뮤지컬과 한국창작오페라가 창작되면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이 한국 창작음악계에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다.

32) 이혜진, “뮤지컬 속의 미학,” 『작품으로 보는 음악미학』 (파주: 음악세계, 2016), 234.

33) 윤종성, “장군에서 극장 수위로.. 흥범도의 인간적 모습에 주목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6566622622416&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2019. 9. 21. 검색일: 2020. 10. 14.

참고문헌

악보

나실인·고연옥. 《극장 앞 독립군》. 미출판.

오희숙 외.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한국과 일본의 현대 오페라』. 서울: 모노폴리, 2020.

이혜진. “뮤지컬 속의 미학.” 『작품으로 보는 음악미학』. 파주: 음악세계, 2016.

_____. “한국 현대음악에 나타난 문화적 기억: 나실인의 오페라 〈나비의 꿈〉을 중심으로.” 『음·악·학』 27 (2019), 45-80.

고보현. “[리뷰]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경비원이 된 말년의 흥범도를 만나다.” <https://m.mk.co.kr/uberin/read.php?sc=30000001&year=2019&no=757649>. 『매일경제』. 검색일: 2020. 10. 14.

권애진. “흥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6>. 『뉴스프리존』. 2019. 9. 7. 검색일: 2020. 10. 14.

윤종성. “장군에서 극장 수위로.. 흥범도의 인간적 모습에 주목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6566622622416&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2019. 9. 21. 검색일: 2020. 10. 14.

이재훈. “[리뷰] 세종문화회관 ‘극장 앞 독립군’, 두 번 공연은 너무 아깝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922_0000776176. 『NEWSIS』. 2019. 2. 22. 검색일: 2020. 10. 14.

Abstract

A Study on the Dramatic and Musical Structure of the Musical Drama *Independence Forces in front of the Theater*

Yi, Hyejin

Written by Nah Sirin and Ko Yeon-ok, *Independence Forces in front of the Theater* is a large-scale musical drama that combines various genres of music, such as classical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pop music, and jazz, as well as several choirs, orchestras, colorful stage equipment and dance.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that music and drama create a consistent dramatic flow throughout the work. The drama is intertwined with several episodes, including the story of Hong Beom-do, set in Russia in the 1940s and the story of General Hong Beom-do, set in Joseon in the 1900s, and another dramatic conflict is created around a character named Yeon Tae-yong. And these divergent episodes converge into a single stream, integrating under the theme of 'The Theater.' This dramatic organicity is effectively supported by music. The six leitmotifs, symbolizing certain situations, characters and emotions, serve as a medium for expressing emotions and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s along with the lines and lead the flow of the story, creating a musical and dramatic network within the entire structure of the work.

Key Words: Independence Forces in front of the Theater, Nah Sirin,
Musical, Opera, Leitmotiv, Plot, Narrative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6일	2020년 10월 17일~11월 25일	2020년 11월 26일

DOI 10.34303/mscol.2020.28.2.002